

국내 고급독자 파고드는 해외의 거장들

보르헤스·투르니에·푸코·들뢰즈 등 일정한 독자층 확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좀머씨 이야기》(열린책들)는 최근 우리 출판계 최대의 화제거리다. 지난 92년 출간되어 그다지 큰 반향을 얻지 못하던 이 소설이 최근 몇주간 서울시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출판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조금씩 주문량이 늘어나더니 올 1월 한달간 판매 부수가 6만부를 넘어서는 ‘기현상’을 낳았다는 것.

특별한 영업전략도 없었고 책의 체제에 변화도 없이 판매부수가 이렇듯 급성장한 예를 찾기는 그다지 쉽지 않은 탓에 《좀머씨 이야기》의 갑작스런 인기는 출판계 전체를 들썩거리게 만들 만큼 당황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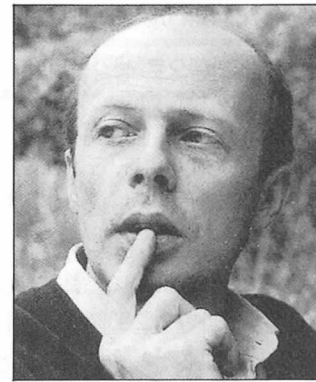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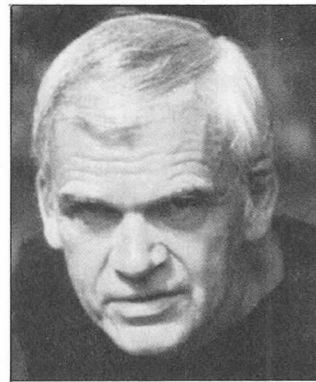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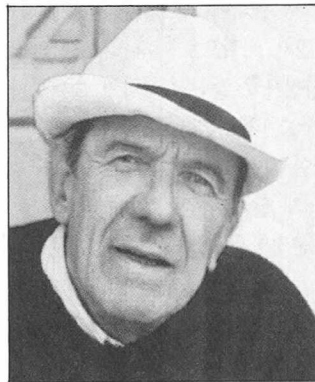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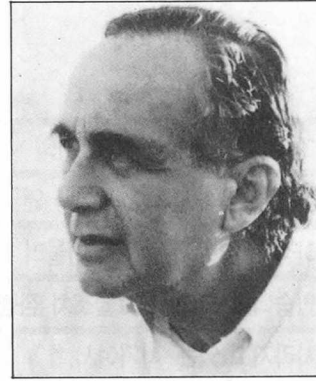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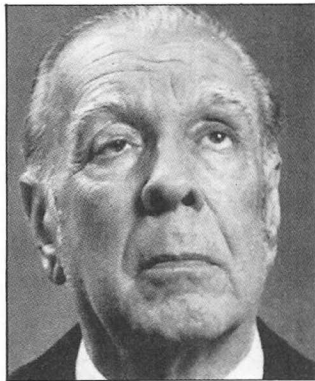
서점가에는 《좀머씨...》만큼의 폭발적인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출간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새삼스레 주목을 받거나, 높은 작품성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고루 갖춘 수준높은 해외 작가들의 문학작품들이 일정한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20세기 지성사에 굽적한 자리를 차지하는 외국 철학자들의 주요저서들도 비좁은 서점의 판대에서 밀려나지 않고 있어 이런 책들을 찾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문학 이끈 거장들

《좀머씨 이야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파트리크 쥐스킨트(1949~)는 전 세계 매스컴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싸인 작가로 유명하다. 34세 때 쓴 모노드라마 《콘트라베이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이후 향수를 만들기 위해 엽기적 살인을 벌이는 기이한 살인마의 행각을 다룬 《향수》(1985)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문학상 수상도 거부하고 베일에 가려진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태생인 잉게보르크 바하만(1926~1973)도 뒤늦게 국내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작가다. 바하만의 작품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75년. 장편소설 《말리나》, 방송극 《만하탄의 선신》과 아울러 산문집 《삼십세》(이상 문예출판사)가 동시에 출간됐으나 세 권 다 별 신통한 반응을 못

국내 독자의 큰 호응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해외의 저자자들. 위쪽 왼쪽부터 보르헤스·푸코·해리스·들뢰즈·쿤데라·쥐스킨트.



얻었다는 것.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삼십세》를 찾은 독자들이 늘어 현재 10쇄까지 펴냈다고 한다. 한 시인이 모 일간지에 실은 감상적 독후감과 김형경씨의 소설 《세월》에 이 작품이 언급되면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일화도 있다. 인생을 투시하는 철학적인 사고와 새로운 언어로 짜여져 있는 바하만의 이 책은 독일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세계문학에 있어 보르헤스의 영향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다면 다른 작가들의 영향은 보잘 것 없는 초가집 같다”는 한 미국 비평가의 말처럼 20세기 후반의 세계문학 상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문학평론가 황병하씨가 보르헤스 선집으로 기획한 5권의 책 중 현재 《불한당들의 세계사》《픽션들》(민음사)이 나와 있고 《모래의 책》(송병선 옮김, 예문) 《허구들》(박병규 옮김, 녹진) 등의 작품이 번역, 소개되었다.

보르헤스는 로브그리에, 데리다, 푸코 등 프랑스 사상가들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형성하는데도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고 우디 앨런, 고다르 등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세기 후반의 모든 인문과학의 사조들이

보르헤스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송병선(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보르헤스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7,80년대를 지배했던 확일성과 단일성을 벗어나 다원성의 시대를 맞은 90년대의 한국문학에 그의 문학세계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왕야의 수탉》《동방박사》 등의 작품이 70년대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던 프랑스 현대문단의 거장 미셸 투르니에는 최근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김화영 옮김, 민음사)으로 화려하게 우리 독서 시장에 복귀한다. 출판사에서 세계문학 선집의 빈 목록을 채운다는 의미로 출간한 이 책은 초판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재판을 찍을 만큼 빠른 반응을 보인 책이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크루소》를 패러디한 이 작품으로 43세의 늦은 나이에 작가로 데뷔한 투르니에(1924~)는 작품을 통해 진정한 철학과 문학이 교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철학적인 사색인 동시에 극단적일 만큼 사실적인 소설이기도 하다.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투르니에의 작품으로는 1967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대상 수상작인 《마왕》과 그가 70세가 되던 해인 1994년 발표한 에세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101가지 개념》(이용주 옮김, 한빛)이 있다. 이밖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최근 들어 작품성과 깊이있는 주제의식을 고루 갖춘 해외작가들의 작품들이 고급독자를 중심으로 점차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지성사를 장식한 거목들의 주요 저서도 비좁은 서점가에서 꾸준히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 책의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담》《불멸》《사랑》 등 10여종이 넘는 작품을 국내 시장에 내놓고 있는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1929~)도 고정 독자층을 확보한 해외의 중량급 저자로 꼽힌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를 탐구해 들어간 그의 작품은 소설이 관념적인 작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식의 소산임을 환기시킨다.

푸코, 들뢰즈, 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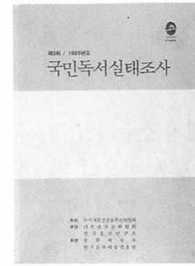
한편, 작가들 뿐만 아니라 현대 지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들 중에도 국내 시장에 탄탄한 뿌리를 내린 사람이 더러 있다. 미셸 푸코, 질 들뢰즈, 마빈 해리스 등이 이들이다.

우리나라 성인 1년 독서량은 9.6권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 제3회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9.6권 정도 책을 읽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 주최로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정희)가 조사한 제3회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책의 해였던 93년보다, 1.7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도 거의 차이가 없으나 월평균 만화독서량은 다소 증가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성인의 월 평균 독서량은 0.8권으로 일본의 1.6권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이며,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량(국민학생 4.2권, 중학생 0.9권, 고등학생 0.7권)도 일본(국민학생 5.4권, 중학생 1.



8권, 고등학생 1.2권)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서시간 역시 성인은 평일 36.6분, 주말 34.7분이며 국민학생 75.1분, 중학생 50.6분, 고등학생 47.7분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시간의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협회장 선거에 뜨거운 관심

오는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 제42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3일까지 나춘호(55) 예림당 대표의 단독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던 분위기에서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황근식(44) 등지출판사 대표



나춘호 후보.

황근식 후보.

가 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새로운 선거전의 양상을 띠게 됐다. 최연소후보로 "지금은 새로운 출판을 만들 때입니다"라는 선거구보를 내세우고 있는 황후보와 "출판을 산업으로, 협회를 단합으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나후보의 대결은 1천2백여 회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판문화산업단지조합 제6차 정기총회

출판문화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4일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문화예술인 구속항의 성명

전국출판노동조합협의회(회장 박강호)는 지난 2월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맥출판사 대표 원용호씨와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문

화예술인 구속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전국출판노조를 서울경찰청이 노래책 《희망의 노래》(전4권, 93)중 37곡이 반미투쟁 등 반국가사상을 받고 노동자, 학생을 선전선동했다는 이유로 대표 편집한 이은진씨와 제작배포한 원용호를 전격 구속한 것은 군사정권의 구시대적 작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적인 석방은 물론 예술창작의 자유를 박탈당한 구속예술인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출판금고' 정진숙 이사장 유임

(재)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지난 1월30일 정기 이사회에서 제6대 이사장에 정진숙 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 하진규(문체부 문화산업국장) 김낙준(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광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김현식(동아출판사 부회장) 노



정진숙 이사장.

양환(우신사 대표) 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 전병석(문예출판사 대표) 이승하(성광문화사 대표) 임홍호(영재교육사 대표, 신임) 최학수(상임이사겸 사무국장) ▲감사: 김준식(대광문화사 대표) 유광종(한국이공학사 대표, 신임)

이들 중에서 미셀 푸코(1926~)는 가히 '수난'이라 할 정도로 최근 학계, 예술계, 언론계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고 해석되는 철학자다. 그의 주요 저서들도 90년대 초반에 들어 거의 빠짐없이 번역되었고 국내의 학자들의 푸코 해설서도 적잖이 나와 있다. 한 철학자의 저서와 해설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두 번역된 경우는 드문 경우로 이에 대해 이정우(서강대 철학과)교수는 "푸코가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데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푸코는 과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지식 또는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식론에서 소외되어 왔던 많은 영역들을 발굴해 내었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서구 철학사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 즉, 주제, 역사, 이성, 권력, 타자의 문제 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일구어냈다는 평이다. 따라서 그의 저서들은 문학비평, 범죄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해설서를 제외하고 국내에 소개된 푸코의 주요 저서의 제목만으로도 푸코의 다양한 사유의 갈래들을 어렵잡을 수 있다. 《광기의 역사》(김부용, 인간사랑) 《임상의학의 탄생》(홍성민, 인간사랑) 《말과 사물》(이광래, 민음사) 《지식의 고고학》(이정우, 민음사) 《감시와 처벌》(박홍규, 강원대출판부) 《성의 역사》(이규현, 나남)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김현, 민음사) 등이 있다.

난해하기로 이름난 질 들뢰즈(1925~1995)의 저서들이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채롭다. 그만큼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찾는 독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번역된 들뢰즈의 저서 혹은 관련서들은 《앙띠 오이디푸스》(들뢰즈·카타리/최명관, 민음사) 《니체》(신병순·조영복, 인간사랑) 《들뢰즈의 푸코》(권영숙·조형근, 새길) 《철학이란 무엇인가》(들뢰즈·카타리/이정민·윤정임 옮김, 현대미학사) 《들뢰즈와 카타리》(로널드 보그/이정우, 새길) 《들뢰즈의 철학사상》(마이클 하트/이성민·서창현, 갈무리) 등 10여종에 이른다. 이같은 출판 붐은 지난해 11월 자살 이후 급속하게 고조된 들뢰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류를 탄 출판'이

라는 혐의도 없지 않지만 "우리의 세기가 그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시야에 충실히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넘겨줄 수 없는 요인이다.

국내 출판계에 문화인류학 바람을 몰고 온 마빈 해리스(1927~)의 인기도 높다. 82년 《문화의 수수께끼》(박종렬, 한길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크게 시선을 끌지 못했던 미국의 이 인류학자는 문화생태학적 입장에서 가족제도, 재산관계, 정치 경제적 제도, 종교, 음식문화 등 다양한 인류문화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데 최근 이질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리 독자들의 지적 수준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문화의 수수께끼》는 25쇄를 넘었고 같은 출판사에서 지난해 나온 《식인과 제왕》(정도영) 《음식문화의 수수께끼》(서진영)과 《작은인간》(김찬호, 민음사)도 5쇄 이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변화된 문화 저변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은 "과거 외국의 수준높은 작품들을 의욕적으로 번역해서 시장에 내놓아봐야 찾는 사람이 없었다"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외국의 고급작가들과 학문적 대가들의 저서가 국내 시장에서 일정한 독자층을 형성하며 자리를 지켜나가는 최근의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이나 포용력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교양 수준이 높아진 결과다. 아울러 학계의 경향이 미국일본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문학이나 철학, 기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난 것도 이들 책의 번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해외의 고급한 문학작품이나 저서들이 보다 더 광범위한 독자층에 의해 오랫동안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출판사나 관련 학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앞으로의 과제다.

—박남정 기자